



### 열역학 제 3 법칙 = 점 없고 흠 없는 인간



일반 물리 현상을 설명하는 법칙 중 열역학 제 2 법칙은 무질서도 (엔트로피, entropy) 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모든 계 (system) 는 질서 (ordered) 에서 무질서 (disordered) 의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된다고 말합니다. 이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가 바로 금속 부식인데, 초기에 반짝반짝 했던 금속 재료가 공기 중에 노출됨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점점 퇴화해 가면서 녹이 나는 재료 부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 나아가 열역학 제 2 법칙은 재료 내 어느 정도의 불순물의 존재가 오히려 재료 전체 에너지를 낮춤으로서 안정한 상태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결점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은혜가 더 없다고,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은혜가 없다고,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 은혜가 더 없다고 하신 말씀... 불안정한 모습 그 자체가 바로 주님께서 주신 모습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재료가 부식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재료 내 불순물의 존재가 더 안정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땅을 딛고 있는 한 타락할 수 밖에 없는 심령을 가지게 된 지도 모릅니다.



(9 월중 방문한 이스라엘 에서)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마치 소실되는 에너지가 없는 0 에너지 출입을 정의하는 (무결점 상태 = 엔트로피 0) 절대 0 도 (0 Kelvin Degree = -273 °C) 의 극한처럼, 성령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죄로 타락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이 세상의 삶에서 점없고 흠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원천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 순수했던 우리 마음이 타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순결, 무결점 상태로 돌아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완전한 상태일 때도 행복했지만, 불안정한 모습에서도 예수의 보혈을 통한 구원 사역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세상으로부터/타락으로부터/불순물로부터 정결케 될 수 있는 성령이라는 에너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